



우리팀은요?

진흥회의 Leader 「업무지원팀」

“**한** 번 시작한 일은 책임지고 주어진 시간내에 마무리 진다”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 업무 지원팀에서는 특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 만큼 기한내의 세무신고 및 직원들의 업무지원, 각종행사 등 시간 제한적인 업무가 많고 서로간에 긴밀한 업무지원관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업무지원팀은 표현 그대로 업무지원이 주된 업무이기에 겉으로 나타난 일보다는 음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많고 그 만큼 사연도 많으며 해주고도 좋은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적지만 각자 나름대로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 자체 스스로가 우리 팀의 의무이자 다른 하나의 업무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팀원들은 훌륭히 받아들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팀은 본회의 총무, 회계 및 세무, 회원관리 및 서비스 등 본회의 전반적인 살림운영 및 회원사 관리·운영을 맡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정기총회·이사회 및 본회의 각종행사 개최, 인사 및 규정 관리, 회원사의 회비부과 및 징수 등 총무·회원관리부문이 있고 자금관리, 세무신고 및 납부,



<맨앞줄 김종수 팀장, 두번째줄 왼쪽부터 박순길 과장, 이미선 사우, 김병욱 사우, 김행준 차장, 박노권 대리, 양준규 대리, 세번째줄 왼쪽부터 곽길주 사우, 김문경 사우, 전희경 사우, 임선미 사우>

각종 회계관리 등의 회계부문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각 팀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지원과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팀원 수는 모두 12명인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쉽과 온화하고 다정한 성품을 겸비하여 대내적으로는 본회의 살림살이를 총괄 집행 및 부회장님과 임원을 보필하며 대외적으로는 정부 및 업체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김종수 팀장을 비롯해 회계 및 세무를 총괄하는 김행준 차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회계·세무부문의 일인자로 국세청 및 정부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급여 및 세무를 맡고 있으면서 업무추진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양준규 대리, 10년째 회계부문의 노하우로 술한 금융권의 입사권유의 손길에도 동요치않고 수년동안 호흡을 같이해오고 있는 그야말로 똑소리나는 이미선 사우

한편, 김문경 사우는 업무에 관한 강한욕심으로 회계부문에 몸담은지 반년정도이지만 업무의 빠른 습득능력은 직원들로 하여금 이쁨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총무·회원관리부문으로 눈을 돌리자면 진흥회 신사로 소문이란 박순길 과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에서부터 인사관리 및 제규정 제정·개폐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가 광대하다.

지속되는 야근에도 항상 얼굴에 환한 웃음으로 팀원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며 회원 및 법정부담금 등을 관리하고 업체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는 박노권 대리.

그리고 활발한 성격과 조성모의 외모로 본회의 문서수발과 우편물 처리를 담당하는 곽길주 사우는 회식자리에서 온갖 재롱으로 웃음꽃을 피운다.

아울러, 우리 진흥회에서 최고매너를 갖추며 부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의 전희경 사우와 다정다감하면서 늘 밝은 표정을 선사하고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대해주는 임선미 사우가 그 구성원을 이룬다.

또한, 진흥회의 만물박사로 알려질 만큼 해박한 지식과 산뜻한 외모의 소유자 김병욱 사우, 포용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팀원들의 만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종철 사우가

있어 우리 팀은 자주있는 야근에도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팀은 직원들간의 단결이 공고히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긴다. 어떤 팀이건 그렇듯이 팀원간의 인화단결은 나아가 그 조직의 생명력과도 같다.

사람이 살다보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때 개인적 사생활은 최대한 보상해 주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애사심과 직원들간의 업무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도 우리팀원들은 잘 알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말은 바 업무에 더욱 더 충실을 기한다.

【 업무지원팀 연락처 】

대표전화 : 553-0941(200~209)

554-4199

팩 스 : 555-6195

팀장	김종수	(교 200)
차장	김행준	(교 201)
과장	박순길	(교 202)
대리	박노권	(교 203)
대리	양준규	(교 205)
사원	이미선	(교 207)
	전희경	(교 204)
	임선미	(교 206)
	김문경	(교 208)
	곽길주	(교 209)
	김종철	
	김병욱	